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신소재공학부	학 번	201**258	성 명	조아해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예나응용과학대	파견학기	2016-1
소요경비	약 1000만원(방 값과 한 달에 195유로에 인터넷 요금 10유로, 보험금 76.83유로, 보증금 300유로인데 기숙사 방 뺄 때 받음, 생활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마트 물가는 서유럽권 중에서 싼 편임, 비자 발급 비용 50유로, 학생회비 204.8유로, 폰 요금 충전 한 달에 15유로, 나머지는 여행경비와 생활비)				
주거	기숙사 Carl-Zeiss (교환학생들이 수업 듣는 건물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				
룸메이트	한국인 1명, 터키인 1명 (룸메이트가 한국인 두 명이 되는 경우는 잘 없음. 우연히 같은 날짜에 두 명이 나가게 되어 같이 들어감) Carl-Zeiss는 주로 3인실이며 남녀같이 씀.				
기숙사 내 한국인	같은 Carl-Zeiss 건물에 한국인 4명, 다른 건물에 3명				
파견대학 정보	학생도시라 학생들이 많음.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매주 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ens라는 모임에 참여했음. 이 모임의 목적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 친구 사귀기엔 좋음.				
주말 및 여가활동	주말이나 시간이 많을 땐 주로 여행을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교환(서로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의 목적으로 독일인 친구와 만남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고나면 튜터가 배정됨. 그 분에 학교 도착한 뒤에 여러 가지 서류 처리를 도와주심. 기숙사 문제는 기숙사 멘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물어보면됨.				
전공	교환학생들은 영어로 수업하는 Scientific instrumentation 수업을 듣게됨. 인도인들이 제일 많고 모두 다 교환학생으로 온 사람들. 수업은 Ansys를 다루는 수업, 정밀 측정 기계들에 관해 배우는 수업, 마이크로나노수업을 전공으로 들었음				
수업 스케줄	학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면 스케줄을 줌. 과목마다 매주 시간표가 다름.				

학생할인 관련	학기 초에 학생회비를 내면 토스카라는 학생증을 주는데 이 카드로 예나가 속해있는 주(state) 내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기차, 트램, 버스) 무료로 이용 가능. 유럽학교 학생증이라 프랑스 같은 경우 모든 박물관 무료(국제학생증으로는 할인 안됨)
ISIC카드 활용	독일에서 이 카드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음. 여행 다닐 때 학생 할인 받는 정도로 사용함.
영어공부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 2개를 들음. 토의와 발표가 있는 수업이라 speaking 공부가 되었음.
여행	주말이나 휴일, 학기 개강 전, 종강 후에 여행을 다녔음. 여름 학기에는 부활절 휴가 등 3번 정도 휴일이 있었고 보통 4일 정도였는데 공강인 날 끼워서 여행 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싸고 저렴하게 여행함.
교통	예나는 작은 도시라 지하철은 없고 지상철 같은 느낌의 트램이라는 것과 버스가 다님. 기숙사에서 수업을 들으러 갈 때는 걸어가지만 시내로 나갈 땐 학교에서 10,11,12번 버스를 타고 감.
날씨	여름학기는 정말 활동하기에도 그렇고 여행을 가기에 아주 좋은 날씨임. 4월 말에도 가끔 눈이 내렸고 3월의 날씨는 한국의 3월과 비슷하고 4월의 날씨도 좀 쌀쌀한 편임. 5월부터 날이 풀리면서 봄 날씨가 지속됨. 방에 선풍기가 없어도 여름 견딜만했음. 그래도 미니 선풍기 정도는 가져와도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음. 8월 중순부터 좀 더웠는데 33도 이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진 않았음.
해외인턴	
추신	
보완점	